탄핵 인용·특검 연장 107만 촛불 활활

서울 100만·광주 3만 모여 '적폐 청산' 외쳐

박근혜·황교안·우병우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100만이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오후 6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파였다. 광화문광장에는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는 외침이 울려퍼졌다.

같은 시각 광주 금남로에는 3만의 촛불이 타올랐다. 부산에서는 2만5000의 촛불이 서면중앙로를 환하게 밝혔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107만명(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추산)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제17차 광주시국촛불집회'에 3만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원순석 광주본부 공동대표는 "폭력을 선동하는 친일·보수 세력들이 태극기를 조롱하고 있다. 이 나라 최고의 법률가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치졸한 전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금남로 본부대 앞에 펼쳐진 가로 20m, 세로 10m의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재벌 구속 처벌', 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외쳤다.

참가자들은 촛불집회 이후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사로 몰려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체'가 적힌 레드카드 스티커를 발부했다.

광주본부 관계자는 "바람 불면 꺼질 것이라던 촛불은 매서운 바람에도 더욱 타올랐다. 탄핵 심판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특검 연장과 개혁 입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국민행동은 3·1절인 다음달 1일에도 18차 촛불집회를 대규모로 열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낮 12시에 5·18민주광장에서 3·1절 기념집회를 열 방침이다.

한편, '국민저항본부'로 이름을 바꾼 탄기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촛불집회의 맞불 성격으로 대한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태극기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처벌하라" 2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박근혜 퇴진 17차 광주 시국 촛불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3만여 명의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진을 담은 10×20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처벌', '적폐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1절 광주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

98주년 삼일절을 맞아 광주에서 1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열린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이 구성한 '광주나비'는 다음 달 1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정기 수요집회를 시작한다. 광주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는 광주나비에 참여한 광주전남 평통사·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 여성민우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지난해 3월 1일에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한 행사 이후 1년 만이다.

출범식은 상징성을 부여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지만, 정기 수요집회는 오는 4월부터 매달 첫 번째 수요일 정오에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이어간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내년 남악신도시에 건립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앞두고 추진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내년 말 전남도청 소재지에 의향 전남을 기리는 '전남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들어선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26일 '전남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지난해 3·1절 이낙연 전남도지사에게 기념탑 건립을 건의하고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도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꾸렸다.

추진위는 국비 4억원 도비 8억원 등 총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말 기념탑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념탑은 전남 도청소재지인 무안군 삼향읍 남악 신도시 내 전남도립도서관 앞마당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많아 교육 효과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후보지 선정의 이유라고 광복회는 설명했다.

추진위는 지난 1896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전남에서 활동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독립정신을 이미지화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한 조형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국 항일의병 62%가 전남에서 일어섰고 광주·전남에서만 1200여명이 건국훈장을 받았지만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기념탑이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물이 2019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들어서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영아원에 맡긴 넷째 데려와 두살배기 둘째아들 살해 감추려 했다

20대 아빠 범행 … 엄마는 방조

광양경찰, 부부 검찰 송치

두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0대 아버지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냈다. 어머니는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봤다. 특히 이 부부는 둘째가 숨지자 영아원에 있는 넷째를 데려와 둘째로 둔갑시켜 이 사건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시신을 찾는데 실패함으로써 부부의 진술 외 직접 증거가 없어 법정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강모(26)씨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내 서모(21)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27일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씨는 남편 범행을 알면서도 2년 넘게 이를 알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다.

이 부부는 서로의 범행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거짓말 탐지기,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강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아내가 훈육 과정에서 아들을 죽였고, 함께 유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이 '거짓'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씨는 여전히 "자신이 죽게 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 분석인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도 강씨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씨는 유기 장소 동행 여부에 대해 앞서의 진술을 번복, "유기 장소 근처에까지 동행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진술의 일관성,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된 강씨 지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서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시신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강씨의 진술을 근거로 여수시 한 야산을 수색해 3일째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24일 발견한 10~13㎝ 크기의 뼛조각 3개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부모 학대로 숨지는 아이 한달 3명 꼴"

복지부, 가해자 80% 친부모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거나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지는 아이들이 지난해에만 한 달에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80%가 친부모라는 점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주위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4년 14명, 2015년 16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6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사망한 아동 39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1명이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9명은 친부모·계부 등이 고의로 살해했으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동만 숨진 경우도 5명이나 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573건에 달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부부싸움 40대 주부, 출동 경찰에 폭력 휘둘러 경찰서행

쌍나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주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십 분간 욕설을 한데 이어 폭력까지 쓰다가 결국 경찰서행.

○…2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주부 이모(44)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몸싸움을 벌인데 이어 현장을 찾아 제지하던 경찰관 박모 경위 등 2명에게 20여 분간 욕설을 한 혐의.

○…욕설과 고성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이씨는 박 경위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함께 온 또 다른 경찰관의 가슴도 4차례 손으로 밀치다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녀 양육 문제로 남편과 다툰 것 같은데 부부싸움 이후로는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한숨.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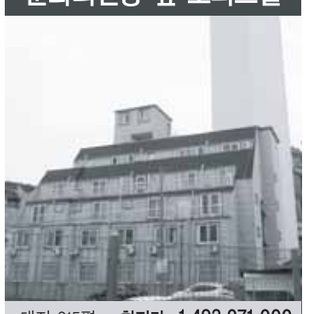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최저가 681,578,000
건물 97평 감정가 1,217,104,900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최저가 1,450,531,000
건물 458평 최고가 2,072,187,000

문화의전당 옆 오피스텔

대지 215평 최저가 1,492,071,000
건물 467평 감정가 2,131,071,000

중흥동 상업지역 토지

대지 612평 최저가 2,126,985,000
감정가 3,038,985,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대지 91평 최저가 425,000,000
건물 340평 최고가 948,794,100

화정동 상가사무실

대지 48평 최저가 382,407,650
건물 160평 감정가 382,407,650

22평형 6가구 (수억성 아주좋음)
대지 110평 건평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융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평
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